

“오장육부 타들어 가는 느낌으로 촬영”

넷플릭스 드라마 ‘모범가족’ 출연 정우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하는 가장 이야기 “잠재된 양면성 드러내는 인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신 옆에 놓인 거액의 돈 가방을 충동적으로 훔친 한 가정의 이야기 ‘모범가족’이 이번 주 금요일 배일을 벗는다. 김진우 감독은 9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외부에서 보기에 모범적이지만 사실은 전혀 모범적이지 않은 가족의 이야기”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김 감독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여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모범적인 가족이 무엇인지 생각해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가족’은 평범한 가정이 마약 조직의 돈에 손을 댔다가 딜미를 잡혀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정우는 범죄에 연루되는 두 아이의 아빠 동하 역을, 윤진서는 무능하고 유약한 남편 동하에게 지친 은주 역을 맡는다.

정우는 “기존에 한 번도 연기해보지 않았던 캐릭터를 연기했다”며 “평범한 도시민 역할은 많이 맡아봤지만, 이번에는 잠재돼있는 양면성을 드러내며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연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하가 땅을 파고, 땅에 묻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쫓기는 등 극한의 상황에 부딪치는데 이를 연기하다 보니 촬영 중에 오장육부가 타들어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정우와 부부로 호흡을 맞춘 윤진서는 “동하와 은주를 포함해서 작품 속 그 어느 인물도 서로에게 공감하거나 동조하지 않는다”며 “각자의 입장에 고립된 인물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에 주목해달라”고 관련 포인트를 짚었다.

‘모범가족’에는 동하네 부부 외에도 각자의 가족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캐릭터들이 팽팽하게 대립한다.

광철은 가족으로 여기며 충성했던 조직에서 내쳐질 위기에 놓이자 먼저 배신을 준비하고, 마약 수사팀 팀장 주현은 가족처럼 의지했던 동료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광철을 주시한다.

광철 역을 맡은 박휘순은 “한 번도 가족을 가져보지 못해서 가족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는 인물”이라고 배역을 소개하고 “캐릭터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건조하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주현을 연기한 박지연은 “배역 오디션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다 못해 마음이 얼얼했다”며 “그간 해온 역할과 너무 다른 역할이라 기대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우 정우.

을 전했다.

이어 “작품은 시종일관 심각한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 웃음 포인트가 심겨 있다”며 “비극을 보면서 웃는 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데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진연의 문화카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중심가에 자리한 ‘메세 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urt)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형물이 있다. 미국 출신 조각가 조나단 브롭스키의 ‘해머링맨’ (Hammering man)이다. 매년 수백 여개의 회의와 이벤트가 열리는 마이스(MICE)센터 앞에 설치된 21m 높이의 해머링맨은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관광객들이라면 꼭 가봐야 할 명소가 꼽힌다.

그도그렇지만 1990년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에 맞춰 첫선을 보인 ‘해머링맨’은 노동의 숭고함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35초에 한번씩 망치질 하는 형상은 역동적인 도시의 일상에 어

이벤트를 개최한 것이다. 이 행사에는 ‘2010 아름다운 강산’ (강익중·2000&2010), ‘아르파치야’ (프랑크 스텔라·2002) 등 17점이 전시돼 시민들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올해 성년을 맞은 ‘해머링맨’이 서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일종의 브랜딩을 펼친 것이다.

광주에도 ‘해머링맨’ 못지 않는 거장의 조형물이 있다. 2005년 제1회 디자인 비엔날레를 기념해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시정 앞 광장에 설치한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인 작가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초대형 모빌작 ‘기원’ (16m)이다. 그런데 올해 설치 17주년을 맞은 이 조형물의 위상은 ‘해머링맨’ 과 너무도 다르다.

물론 광주에 첫선을 보인 직후에는 빛의 도시

‘해머링맨’과 ‘기원’

울리는 최적의 조형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후 전 세계의 12개 도시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공공장소에 주로 설치돼 왔다.

지난 2002년 서울 광화문 흥국빌딩에 등장한 ‘해머링맨’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제작된 작품이다. 흥국생명은 2000년 당시 24층 사옥을 신축하면서 웅장한 건축물 규모와 직장인들이 많은 주변의 특성을 고려해 조나단 브롭스키에게 조형물 제작을 의뢰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출근길 직장인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조각상을 보며 잠시 노동의 가치와 고단한 삶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 광화문의 ‘해머링맨’을 관리하는 태광그룹 사회예술평화재단은 꽤 이례적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난 6월 ‘해머링맨’의 설치 20주년을 맞아 흥국생명빌딩 1층과 지하 1층, 빌딩 주변에서 국내외 유명작가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광주를 형상화한 7개의 모빌식 원형 오브제에 시민 개개인의 염원을 담은 세계적인 예술가의 작품이라는 사실로 미술계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절마다 다른 색깔을 입도록 디자인한 예술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도시의 대표 조형물로 알리는 전략도 없어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난 6월 당시 신인분으로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과 화동한 만난 강기정 시장이 ‘기원’의 존치여부를 언급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잘 만든’ 공공조형물은 시민들의 미적 안목과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해머링맨의 20주년 행사는 광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쟁력 있는 공공조형물을 ‘거리의 미술관’으로 키우려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은 필수다. 무엇보다 문화도시의 면모는 디테일에 있다. <문화·예향담당국장, 선임기자>

JTBC, 스타들의 신인 가수 재데뷔쇼

‘인생 리셋-스타 탄생’ 다음달 첫 선

그룹 마마무의 메인보컬 솔라, 트로트 가수 장민호 등 기존 스타들이 신인 가수로서 다시 데뷔하는 예능이 시청자들을 찾는다.

JTBC는 다음 달 초 ‘인생 리셋 재데뷔쇼-스타 탄생’ (이하 ‘스타 탄생’) 첫 회를 방송한다고 9일 밝혔다.

‘스타 탄생’은 스타들이 얼굴 변환 애플리케이션으로 창조된 ‘부캐’ (부캐릭터)를 통해 신인 가수로서 다시 데뷔하는 인생 리셋 음악 버라이어티이다.

스타들은 앱을 통해 나이와 성별뿐 아니라 국적까지 초월해 자신이 원하는 부캐를 무한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솔라가 동요를 부르는 소녀와 카리스마 넘치는 래퍼로 변신한 모습이 나왔다.

또 장민호가 아이돌 H.O.T. 모습으로 변신해 무대에 오른 모습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연경인문문화예술연, 18일 백승중 교수 초청 강좌

날로 기후위기가 지속되면서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작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구적 차원에서 과잉 산업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적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생태주의 개념의 본질을 우리의 동학사상으로 풀어보는 강연이 열린다.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소장 석연경)가 진행하는 생태인문학강좌가 오는 18일 오후 4시 연구소에서 열린다. ‘생태주의-동학-무위당 장일순 선생-시인 김지하 이야기’를 주제로 백승중(사진) 교수가 강연을 한다.

백 교수는 동학의 본질이 “관계의 질적 전환”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한국적 생태주의 특색이



라고 해설한다. 즉 동학의 큰 스승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하늘’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백 교수는 동학사상의 정수는 무위당 장일순과 같은 선각자를 통해

한국 현대사회에 계승되었다고 본다. 무위당은 고전에 능통하고 서화에도 뛰어난 인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대부이자 생명 운동의 선구자였다는 것. 또한 그는 오늘날 많은 시민이 애호하는 ‘현실립’ 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문의 010-3638-638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